부모의 역량 강화

상상력과 창의력

이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고 고급 기능에 속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이것은 굳이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고, 모든 리더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상상력 창의력, 통찰력, 결단력과 용기 등이 있다.

우선 부모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 부모가 성장하면서 이것을 키웠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자녀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자녀의 미래와 입시와 관련해서, 부모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속담에 '부모 복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모가 가진 재산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미래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두고도 적용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미래를 결정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부모와의 인연이다. 일례로 예전에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부모가 시킨 대로 직업을 택하거나 진학하여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지 생각해보시라. 당장 눈앞의 밥벌이 전선에 자식을 내몰면서, 상상력으로 그의 미래를 숙고하지 못한 일이 참 많았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한몫했다.

그렇다면 왜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과 미래는 더욱 그러하다. 현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직업이 미래에 존속한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에 좋은 직업이 미래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현재의 좋은 직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방식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산업사회 때 잘나가던 기업이나 직종은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역전되었다.

게다가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가령 옛날에는 연예인을 광대 취급하여 잘살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연예인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사±자 돌림 이를테면 권력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선호하고, 돈을 벌면서 존경까지 받는 의사를 선호했고, 사회로부터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는 길을 원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다양하다. 그런 직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한 것은 지금까지 해당 직종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 탓도 있지만, 선호하는 외형적 가치가 이제는 의미 없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적당한 수입을 보장하면서 내면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최고의 직업이다!

해서 미래는 어떤 직업이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상상력의 도움으로 미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를 대비해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부모나 스승 된 자의 교육관에 대한 혁신 또는 혁명이 요구된다. 그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적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렇듯 개인 각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그 옛날에도 혁신 곧 개혁이 필요했다. 흔히 역사 학계에서 선생의 학문에 실학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생은 각종 글과 상소문을 통해 개혁 또는 혁신을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경장론更張論으로 그 주장이 들어 있는 문서 가운데 하나가 1582년(선조 15) 선생 나이 47세 때 올린 「진시폐소陳時弊疏」로서 풍전등화와 같은 당시의 절박한 선생의 시국 인식이 들어 있다. 그 가운데 선생은

> "지금 전하께서는 폐단이 오랫동안 쌓인 뒤에 이어받았으니 경장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번 제도를 개혁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시므로 변통變通해야 한다는 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비유하자면 오래 묵은 집의 재목이 썩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도, 서까래 하나 갈지 않고 기둥 하나도 고치지 않고서 앉아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비록 아무리 좋은 옛날의 법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일이 변하면, 또 준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라고 하여 개혁해야 할 상황과 당위성을 말하였고, 이어서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왕업도 망할 것이니, 그저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적을 치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제갈량諸葛亮의 말을 인용한 다음, 다시 말하기를

"경장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 그저 앉아서 망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경장을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선생은 당시의 상황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그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소문에서는 세금 제도의 개혁, 아전의 인원 감축, 감사의 임기 확대 등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 외에 국방개혁, 인재 등용, 적폐 청산, 부역 제도 등이 있다.

부모로서 시대를 내다보는 상상력과 자녀 교육에 대한 창의성이 없으면, 장삿속으로 유혹하는 온갖 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를 실험실의

생쥐로 전락시킨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치고 피곤하여 되레 상상력과 창의성은 죽어버리고, 현실에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한다. 누구나 지치면 그렇게 되는 법이다. 부모로서 자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것이냐 하는 점은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선생의 역사 흐름의 관점을 앞의 경장 이론과 함께 소개한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更張을 살펴보자.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어떤 일이든 이 세 가지 범주에 든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은 말 그대로 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수성은 조상이나 부모가 만든 일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며, 경장은 혁신이다.

이는 모든 조직에 다 필요한 일이지만, 부모로서 자녀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 곧 새롭게 자신의 사업을 개척하든지, 예전부터 하던 부모의 일 또는 기존의 사회적 방식을 잘 따르든지, 아니면 혁신해 나가는 일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일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지만, 창업과 혁신에 더욱 그것이 요구된다. 무엇을 선택하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부모의 통찰력, 판단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후자는 뒤에서 다룬다.

그러니까 가령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 손쉽게 남이 하는 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창적 방법을 찾을지, 어차피 번역기가 잘 나오니 무시하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입시제도를 따를지, 다른 방식으로 진로를 개척할지, 기존 직업을 찾을지 아니면 세상에 없는 직업을 만들어낼지,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

리는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놀고 즐기는 일에 많이 쏟을지, 빈 농촌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개척할지 등의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 전적으로 교사나 부모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실 우리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도 이런 것을 키워주기보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에 매달리는 일이다. 입시 교육은 이미 있는 정답을 맞히는 일에 매진한다. 선행학습이란 미리 정답을 아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 들어가 봤자, 기존의 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전보다 조금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그 영역도 축소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기가 어렵다. 학생들은 기존 지식과 이론을 따라가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 준다는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맞히게 하는 일이 아니다.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이자 솔루션을 자신이 찾거나 만드는 일이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서 미래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풍부한 자가 승리한다. 열악한 부모의 구멍가게 같은 가업을 자녀가 이어받아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간 매출이 부모의 몇십 배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걸 보면 상상력과 창의성은 가장 큰 자산이다.

그것은 어릴수록 기르기가 쉽다. 그것도 놀이를 통해서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필자도 한때 나름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글쓰기에 많이 이용하였다. 그것은 어릴 때 놀던 데서 싹텄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공부한 경험은 독서 외에 별로 기억

나지 않지만, 놀았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것이 내 모든 글쓰기의 배경이 되었다. 어릴 때의 노는 일을 단순히 노는 일이 아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공부이다. 하지만 어떤 일에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하다.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 문제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하다. 부모 자신이 그것이 풍부하다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자식의 상상력과 창의성의 싹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길러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아이를 상대하는 공교육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억지로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경험을 대량으로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통찰력

모든 리더 곧 기업의 장이나 부모나 교사는 구성원이나 자녀의 역량과 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 참 많다. 특히 젊은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 공부 대상과 방식, 학습이나 태도에 대한 조언, 잘못된 행동의 교정 등에 있어서 상황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솔루션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해당 일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적은 것이 일차적 이유이다. 젊은 부부로서 자식을 누가 미리 키워봤겠는가? 다만 적은 수의

자식이라도 오래 키우다 보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직관적으로 나름의 해법을 알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자기 자식은 이미 자라 버렸으니 단지 남의 어린 자식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 부부보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교육적 역할이 컸다. 그것은 그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다.

통찰력insight은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은 평소 경험과 학습이 누적되어 새로운 사태를 만나서 발휘된다. 앞서 선생이 주희朱熹의 내용을 소개할 때 '훤히 꿰뚫어 안다'라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을 설명할 때 등장했다. 그 점을 다시 소환해 보자.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공부를 오래도록 쌓아서 하루아침에 탁 트이면서 이치를 관통하여, 사물의 이치가 내 마음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마음이 극진한 데 이른다면, 나의 식견이 성현聖賢과 합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루아침에 탁 트인다'라는 말은 앞서 말한 활연관통의 경지를 말한다. 물론 선생의 관심은 성리학의 특성상 일반적인 일에 대한 통찰이라기보다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그것이다. '공부를 오래도록 쌓아서'라는 말은 누적된 학습과 경험을 일컫는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통찰을 굳이 윤리적 가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 곧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젊은 부모가 통찰력이 뛰어나 자녀를 잘 이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 교육에 관한 이런 통찰력은 경험이 적

은 부부나 교사보다 나이 든 노인 또는 노련한 교사들이 더 뛰어나다. 자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들 통찰력의 도움을 받는 일이 현명하다.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또는 이웃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노인의 자문도 좋다. 몸에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으면 되지만, 이런 교육적 문제는 교육 전문가나 경험자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 독서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거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양이다. 특히 자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거나 지적 발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상담사를 찾는 일이 거의 없다. 자녀의 진로나 학습에 대해서는 다른 부모의 방식을 따라 하거나 유행 따라 남들이 어떻다고 하는,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한다. 조금 관심이 있다면 학원의 강사나 입시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한다. 그들이라고 통찰력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성적이나 입시에 한정된다. 게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좋다는 상업적 선전마다 현혹되면 최악이다!

아무튼 가정의 리더로서 당장 통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타인의 그것에 의존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부모로서 성장한 자녀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조언이나 충고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나겠지만, 사실 자녀에게 부모의 가르침은 죽을 때까지도 이어진다. 부모는 자녀를 늘 어리고 미숙하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서 그런 고집을 굳이 이어가려면 더욱 통찰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조언을 받거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순간이 와서 자녀가 부모의 역량을 능가한다면, 잘 키운 보람 있는 일이다.

결단력과 용기

리더가 일을 시행할 때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그 결단에는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최종적 책임이 대체로 그에게 있어서 결단력의 발휘는 매우 중요하다.

결단력이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모든 정신 기능을 동원해야 한다. 경험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과 통찰력 등이 그것이다. 결단은 새로운 시도이므로 용기도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으로 이러한 용기를 발휘하는 결단의 연속이다.

선생은 선조에게 개혁의 용단勇斷을 내려 달라고 상소를 통해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바로 이 용단이 용기 있는 결단을 뜻한다. 그 가운데 「만언봉사萬言封事」에 들어 있는 말이다.

> "삼가 보건대, 전하의 자질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인자하심은 백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총명하심은 간사한 자를 분별하기에 충분하며, 용맹은 결단을 내리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왕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좋은 다스림을 추구하는 정성이 독실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성왕과 같은 임금이 될 수 없다고 여겨서 뒤로 물러나 스스로 과소평가하여, 마침내 떨치고 일어나 분발하려는 의지가 없으십니다. 전하께서 무슨 소견으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인 선조의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용단을 내릴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용단은 리더의 고급 역량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용단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선생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학집요』를 써서 올린 이유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있다. 『대학』의 순서에 따라 공부하고 수양해야 올바른 결단을 내려 가정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거기서 말하는 제가齊家의 가家는 오늘날 핵가족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옛날 대부가 다스리는 작은 통치 조직이니, 군자는 우선 제가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여 국國과 천하天下로 확장한다.

여기서 또 선생은 남송 장식張栻의 말을 인용하여 『대학』의 "수신에서부터 치국에 이르기까지 지知·인仁·용勇의 세 덕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지知는 일을 아는 것이요, 인仁은 일을 행하는 것이요, 용勇은 일을 결단하는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일을 실행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로서 이 덕목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바로 용기 있는 결단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결단은 함부로 쉽게 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 리더는 결단을 내기기 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전

문가나 그 집단의 자문諮問을 청취한다. 각종 조직의 수많은 자문 기구가 그래서 있다. 부모로서 결단력을 발휘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 결단의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결단일수록 많은 경험과 학습이 필요하며, 그것만으로 불충분하면 타인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다.

이렇듯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역량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력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진로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성세대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면에는 부모의 이러한 막강한 결단이 영향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다. 가령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일이든지, 큰아들만 대학까지 보내고 나머지 형제는 그렇게 못했든지, 부모의 판단 착오로 사업에 실패하여 가정이 풍비박산 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도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든지, 부모가 반대해서 좋아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지 못한 일 등 부모가 결단한 일이 무척 많다. 다행히 자녀가 성공했다면 별 탈 없지만, 실패한 삶이라면 대개 두고두고 원망한다. 부모의 올바른 결단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렇게 훗날 자녀에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자식 일에 대한 올바른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